



코스피
2124.78
(+26.07)



코스닥
717.71
(+2.85)



국고채
1.48
(-0.01)



환율
1176.10
(-9.70)

광주지역 삼계탕 전국서 가장 비싸다

지난주부터 지역 낮 최고기온이 26도를 넘어서며 여름 보양식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광주지역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1만 4,000원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육계 가격은 지난주 양도시장 기준 4,200원으로 1년 전 4,160원보다 소폭 0.9% 올랐다. 그럼에도 식당에서 파는 삼계탕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다.

광주지역 삼계탕 한 그릇은 1만 4,400원으로 전남동월과는 같았으나 2년전과 비교해 1.4% 오르며 서울(1만 4,385원), 경남(1만 4,100원), 부산(1만 3,714원)보다 가격이 높았다.

여기에 일종의 프리미엄 삼계탕이라고 불리는 전북 삼계탕과 옷 삼계탕 등은 그릇당 2만 원을 넘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유명 보양식 가게들 대부분 '서민 보양식'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로 광주에 4개 지점을 낸 고려조 삼계탕의 기본 가격은 1만 5,000원으로 2년 전보다 7.1%나 상승했다. 이 식당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맛집들의 삼계탕 가격은 1만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을 넘고 있다.

여름 대표 보양식으로 꼽히는 장어구이 역시 kg당 가격이 7만 원대로 서민들이 접하기에는 비싼 편이다.

여름철 입맛을 살려주는 '별미' 냉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7,800원으로 지난해



한그릇 평균 1만 4,400원 서울·부산보다 높아

생닭 가격 제자리 불구 삼계탕 가격은 더 올라

여름 보양식 장어·별미 냉면 서민 먹기엔 부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0원 올랐다.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과 임대료가 오른 데다 성수기를 맞아 재료가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가격대는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직장인 박수현씨(31)는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부담이 되는 건 알겠지만 삼계탕 한 그릇을 2만 원 가까이 내고 먹기에는 부담스럽다”며 “차라리 마트에서 파는 간편 삼계탕 등이 저렴하고 좋은 것 같

다. 몸보신 제대로 하려다가 등골 빠지겠다”고 토로했다.

보양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은 판매가격에 각종 부재료비 등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생닭 등 원재료와의 단순 가격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한 삼계탕 식당 대표는 “임대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부담이 크다”며 “파스타, 피자 등의 가격과 비교한다면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가상승의 흐름일 뿐”이라고 말했다. /송수영 기자

광융합산업 발전기반 구축 탄력

국회서 종합발전계획 정책토론회 열려

광융합기술 지원법이 지난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광융합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업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광융합산업의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주목된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광기술원, 한국조명·ICT연구원, 한국광학회 등 광융합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해 광융합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대학교 이병호 교수의 ‘광융합활성화·국제 추세’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립중인 ‘광융합기

술 종합발전계획’이 공동 발제돼 이목을 끌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광융합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담은 중장기 플랜이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 완성되면 참여기를 겪고 있는 광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열린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광산업이 광융합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 유망 분야 발굴과 함께 해외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전문가를 통한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와 국내외 인증 확대, 광융합 분야 산업 통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길용현 기자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2학기에 신규 장학생 500명 안팎을 선발해 총 2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제공해 졸업 후 농업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교육 지원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받은 장학생은 졸업 후 영농 및 농촌에 있는 농식품 분야 산업체에 취업 또는 창업하는 등 의무 종사해야 한다. 농업 관련 의무종사 기간은 장학금 수혜 학기당 6개월씩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전, 광 가스발전소 건설 우선협상

국내 기업과 동반진출 2천억 경제효과

한국전력(사장 김중갑)은 미국 광 전력청(GPA)이 발주한 데데도(Dedede) 가스복합 발전소(200MW급) 건설 및 운영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향후 25년간 전량 판매하는 BOT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020년 5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 10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경쟁이 있는 한전(지분 60%)과 디젤발전소를 운영해 본 동서발전(40%)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최초로 미국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것.

이번 사업의 특징은 발주처인 광 전력청이 연료공급을 직접 맡아 연료비 가격변동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는 점이다. 전력요금과 재원조달, 건설과 운영비용을 모두 달러화로 통일해 환위험도 최소화했다.

또한, 종합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이 EPC(설계·조달·시공)사업자로 참여하고, 다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건설 관련 보조기기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향후 약 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서미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제주국제공항의 발권·체크인 카운터와 라운지 리모델링을 모두 마치고 19일 새로 문을 열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제주국제공항 카운터·라운지 ‘새 단장’

아시아나항공이 제주국제공항의 발권·체크인 카운터와 라운지 리모델링을 모두 마치고 19일 새로 문을 열었다.

제주공항 터미널 서편에 있던 카운터와 라운지는 터미널 동편으로 이전했다. 특히 카운터는 터미널 3층 1번 게이트 앞으로 옮겨 접근성을 높였다.

라운지는 모두 새 시설로 리모델링해 고객 만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아시아나는 설명했다.

제주공항지점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사업장에서 고객을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됐다”며 “시설 이전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승객들은 카운터와 라운지 위치를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전국 주요 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노선을 하루 42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노선 여객운송 점유율 20.9%로, 제주 취항 항공사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미애 기자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